

## 할 일도 많고 분주했던 乙酉年을 보내면서

친애하는 임원님과 전국 조경수 회원님 여러분!

협회의 안정과 회원들이 경영하는 조경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경산업의 보다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회장직을 맡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하니 참으로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실감케 합니다.



全宇錫

(社)韓國造景樹協會 會長

금년 초 새로운 임원진을 개편하면서 조경수의 품질을 향상하고 판매를 촉진하여 건전한 사업 경영과 회원간의 친목 및 화합을 통한 유대를 강화하며 협회 및 지부의 활성화를 기한다고 다 같이 다짐한 뜻깊은 을유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녹화와 온 국민이 편안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조경공간을 푸르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경제여건이 어려운데도 협회와 회원들이 단결하고 노력하여 사업을 이끌어 왔으며, 협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토양개량, 장비, 관정,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유통단지조성 보조금 집행과 확보, 융자금지원과 이자율 3%인하, 해외기술 연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우수농장 표창, 새로운 발전정책과제 건의 등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달성하였다고 자부하면서 이러한 것은 모두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북도 내에서 조경사업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전북조경대상 전라북도 지사상”을 받은 이일병 지부장과 국립 목포대학교에서 “명예조경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한승 이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가 생산, 판매하는 조경수 중 소나무류에 발생한 재선충병 예방 때문에 산림청 법령과 지침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회의와 산림청 건의 등 분주하게 지내면서 괴로움도 많았으나, 산림청 당국에서 우리의 의견을 거의 수용하여 줌으로써 회원들이 판매한 소나무류가 이동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도 있으나, 확산저지와 박멸 정책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이동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경우, 의견을 들어 재협의 하는 등 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앞장서고, 비회원들에게 지도와 감시를 통해 조경수 이동으로 감염지역이 확산되었다는 여지가 없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고, 만에 하나 조경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전면 금지를 조치한다고 하니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앞으로 우리 협회와 회원사들은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할 사업들은 다같이 힘을 모아 다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시 새로운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함께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데 진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임원님과 회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丙戌年에는 세계평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별로 경쟁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며,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안정하고 잘 살수 있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우리 회원들은 선진경제, 복지국가에 걸 맞는 푸른 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공간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과 힘을 합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길러온 지식과 기술을 총합하여 우량조경수 생산과 아름다운 조경공간을 만들어 조경인들의 긍지를 높여 나가는 한편, 신품종, 신기술개발, 유통체계 확립과 상호협력을 통한 홍보도 강화하여 우리의 자립기반 향상과 조경산업 발전을 기필코 성취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협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원님과 산림행정 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 12.

(사)한국조경수협회장

전 우 석